



제69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9월 28일)

조선시대 불상의 가치와 의의

허형욱, 301호 불교조각실 18:00~18:30

우리나라 불교미술에서 시대별로 대표작을 꼽아보라 하면 삼국시대는 반가사유상, 통일신라는 석굴암, 고려시대는 불화라고 답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교미술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제작수준이 낮다고 보기도 하여 선뜻 대표작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대의 불교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선입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 불교를 논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는 송유억불崇儒抑佛 또는 송유배불崇儒排佛입니다. 이러한 개념규정식 용어 때문인지 조선시대 불교는 쇠퇴했다고 여겨졌고, 이 시기 불교미술도 사람들의 보편적 관심에서 멀어져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유억불과 송유배불이란 말 자체는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용어인데다, 조선시대에는 불교 신앙 활동이 그 앞 시대 못지않게 성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미술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부터 차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불상은 당시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증거하는 물질문화의 하나로서 질적 측면 못지않게 양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현전하는 조선시대 불상의 수량은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 후기 불상의 다수는 전국 각지의 사찰에 모셔진 채 여전히 신앙의 대상으로 종교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원자·시주자 등 불상 조성에 참여한 이들과 제작과정을 기록한 조상기가 상당수 전하여 다양한 정보를 생생히 알려주는 사료로서도 가치가 큼니다.

조선시대 불상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관련 기록의 부족으로 제작자를 알 수 없는 불상이 대부분인 그 전시대와 달리, 기록을 근거로 누가 만들었는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사원을 재건하면서 승려장인이 주축이 되어 대부분의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승이라 불리는 이들은 집단으로 작업을 했고, 스승과 제자 또는 동료들은 일정한 조각양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서 마치 법맥을 이어가듯 자신들의 계보를 형성해나갔습니다. 이처럼 조각승 집단의 존재와 활동은 같은 시대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만의 독특한 현상으로서 동아시아 불교문화사적 차원에서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아울러 조선 후기는 우리나라 불교조각사를 통틀어서 작가론적 접근과 연구가 가능한 유일한 시대였습니다.



제69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9월 28일)

손으로 감상하는 도자기

박연희, 304호 분청사기 · 백자실 18:00~18:30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친 말로, 각각 다른 흙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도기는 진흙(도토)을 사용하고, 자기는 돌가루로 만든 흙(자토)을 사용합니다. 진흙은 굽는 온도가 낮은 반면, 돌가루로 만든 자토는 1,200도 이상을 견딜 수 있어 더 단단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도자기’를 감상할 때 어떤 감각을 이용하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여 도자기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1. 그리기

전시실을 둘러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하나 고르세요. 선택한 도자기 앞에서 종이에 연필로 도자기를 5분 동안 스케치 하세요. 그리면서 눈으로만 볼 때는 잘 몰랐던 것들과 그리면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글쓰기

또 다른 도자기를 하나 고르세요. 주어진 종이를 삼등분하여, 고른 도자기에 관해 ‘발견한 것’, ‘생각한 것’, ‘궁금한 것’을 5분 동안 적어봅니다. 작성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3. 만들기

도자기 ‘교육상자¹⁾’를 활용하여서 도자기의 이름을 지어보고 이름에 알맞은 도자기도 만들어 봅시다. (이름 짓기 순서: 종류-기법-무늬-용도)

- 종류: 백자, 분청사기, 청자
- 기법: 상감, 인화, 조화, 박지, 철화, 귀얄, 분장 등
- 무늬: 버드나무, 연꽃, 용, 대나무, 물고기, 끈, 모란, 포도 등
- 용도: 매병, 주전자, 편병, 병, 향아리 등

1) 어린이박물관에서는 매년 특정 문화재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교구재 모음인 ‘교육상자’를 만들어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69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9월 28일)

교과서 속 유물 탐구

조혜진, 113호 고려 I 실 19:00~19:30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고려청자’ 혹은 ‘금속활자’, ‘팔만대장경’ 등을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려청자 상감기법의 우수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금속활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제 처음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그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문화재를 통하여 고려 문화의 우수성을 알아봅시다’라는 소제목으로 고려청자와 인쇄술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고려청자의 비색과 상감청자 기법은 당시 중국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신이 고려 개성에 머물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고려도경’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이 고려청자에 대해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자기의 푸른빛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한다. 근래에 만드는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병의 모양은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작은 뚜껑이 있고, 술병의 겉면에는 연꽃이나 엮드린 오리 무늬가 있다”

고려청자의 비색과 상감청자 기법에 대해서는 중학교 역사책에는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감청자의 제작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금 박물관에서 보고 있는 다양한 청자의 사진들이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인쇄술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고려에서는 인쇄술이 크게 발달하여 다양한 서적들이 간행되었는데, 고려인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고 나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흥미가 뚝 떨어지고 지루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우리가 아는 것들을 떠올려볼까요? 주먹도끼, 신라금관, 반가사유상, 고려청자, 백자 등, 모두 교과서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이 넓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내가 알고 있는 유물을 찾아보세요. 그 유물에 대해 배웠던 나의 학창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물이 그 시절에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교과서 속 유물 탐구는 바로 과거의 나를 추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절의 나를 생각하면서 유물을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9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9월 28일)

이야기를 담은 옛 그림

강한라, 202-5호, 서화Ⅱ실, 19:00~19:30

높게 솟아오른 절벽 아래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에 배를 띄운 이들이 있습니다. 여름 지나는 달이 동그랗게 솟아오른 이 밤에는 바람도 불지 않는 듯 잔잔한 물결만이 배 주위로 흘러갑니다. 뱃머리에 기대앉은 이는 보름달 아래 펼쳐진 풍광이 주는 정취를 만끽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맞은편에 자리한 일행의 구슬픈 통소 소리에 그 정취는 배가 되었을 테지요. 동자가 준비한 술상 한 편에 화면 속 주인공들과 함께 앉아 음률이 있는 뱃놀이를 함께 즐기고 싶어집니다.

달밤의 흥취가 화면 너머까지 전해지는 이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여덟 폭 고사 인물도 중 한 폭인 <적벽야범赤壁夜泛>입니다. 이 그림에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잘 알려진 호 덕에 ‘소동파’라는 이름으로도 익숙한 중국 송나라의 문인 소식蘇軾의 이야기입니다. 유배 중이던 소식은 1082년 음력 7월 16일 양자강 적벽에 배를 띄우고 벗과 밤새워 뱃놀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적벽의 격전을 떠올리며 옛 영웅들을 회상하고, 달밤 고요히 펼쳐진 자연을 바라보며 삶과 죽음, 그 유한함과 초월성에 관하여 읊었지요. 이 밤의 이야기를 담은 유려한 산문시 「적벽부赤壁賦」를 조선시대 선비들은 사랑해 마지않았습니다. 제법 긴 글이지만 외워 읊는 것은 물론이고, 가락을 넣어 노래처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음력 7월 16일이 되면 소식을 따라 벗들과 밤 뱃놀이를 떠나는 것이 선비들의 풍류 문화로 자리 잡기도 하였지요.

김홍도의 <적벽야범>은 적벽의 밤 뱃놀이의 정취를 그림 한 폭에 넘치게 담아 내었습니다. 화면을 마주하면 시야에 바로 가득 담기는 적벽의 모습과 그 너머 높이 뜬 보름달은 소식이 뱃놀이를 떠난 그 밤으로 단숨에 빠져들게 합니다. 김홍도의 이 그림을 감상하였을 당시 사람들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림 속 정취에 고요히 잠겼다가, 오래 전 어떤 밤의 뱃놀이에서 친구와 함께 읊었던 적벽부를, 혹은 아직 다녀오지 못한 뱃놀이 약속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김홍도가 그린 8폭의 고사인물도는 여덟 가지의 각기 다른 옛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로 옮겨진 이야기 속 풍광에 잠시 멈춰서, 옛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1. 김홍도, 고사인물도, 조선 18세기 말